

바이든 “끝까지 완주” 선언 ‘트럼프 2기’ 전 세계 촉각

미국 대선 격랑 속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 사퇴론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미 대선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진영으로서 승산에 빨간불이 켜진 바이든 카드를 고수할 수도, 승리가 확실한 대안을 확보하기도 여의찮은 상태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자화자찬 화법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어 미 대선 레이스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TV 토론 직후 들불처럼 번지는 사퇴론에도 현재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30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 가족회의에서도 그가 대선 레이스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그의 가족들은 처참했던 TV 토론에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를 계속 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퇴론이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첫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해 온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30일에도 일제히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역지 중 하나인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 편집진도 자체 회의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CNN 방송은 민주당의 막후에서 핵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억만장자 후원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 사퇴해야 한다는 조기 후보 교체론 ▲ 이것이 더 큰 자기 파괴적 행위라는 후보 유지론 ▲ 당 차원에서 여파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정리해야 한다는 ‘선(先) 파장 검토 후(後) 거취 결정론’ 등 크게 3가지의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 오랜 우군과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흔들기’는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만 굳혀주는 꼴이라며 일단 외형상으로는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을 기회로 바이든 대통령을 꺾어내리면서 자신을 추켜세우는 특유의 전략을 심분 활용 중이다.

‘트럼프 2기’가 현실이 되는 시나리오에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신경전을 이어갔던 유럽 정계에서는 이번 미 대선 레이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용퇴해 트럼프에 맞설 후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최근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마리아그네스 슈트라크-침머만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후보를 내지 못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느낄 역사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론에 직면하면서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이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하려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NYT가 30일 전했다. /연합뉴스

미국인 10명 중 7명 “바이든, 포기하라”

72% “대통령직 수행 위한 정신 건강·인지력 부족”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현지시간) 나왔다.

CBS는 유고브와 함께 지난 28~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1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4.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28%)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2월 같은 기관 조사 때는 출마 반대 63%, 찬성 37%였다.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출마 반대’(46%)보다 많긴 했지만, 출마 찬성(64%)이 반대(36%)를 크게 압도했던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

또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지명돼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55%는 ‘계속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45%는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대상 중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는 응답(27%)을 압도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 ‘그렇다’는 응답이 35%였다.

이번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선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총선 극우 압승...마크롱 ‘벼랑 끝’

국민연합 1차 투표 33% 득표
범여권 22%...90~120석 그칠 듯
마크롱 “결집 필요” 지지층에 호소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에낭보몽에서 극우 성향 국민연합(RN) 지지자들이 총선 1차 투표 결과를 보고 환호하고 있다. 이날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30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의 출구조사 결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3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BFM TV는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RN이 1차 투표에서 3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좌파 연합체 신민중전선(NFP)의 득표율은 28.5%로 115~14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앙상블은 22%의 득표에 그쳐 의석수가 90~120석에 그칠 전망이다.

일간 르피가로에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기관 IFOP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은 34.2%를 얻어 240~270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NFP는 29.1%로 180~200석, 범여권 앙상블은 21.5%로 60~90석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냈다”며 “유권자들이 마크롱 7년간의 경멸

적이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려는 열망을 명확한 투표로 보여줬다”고 환호했다.

그는 이어 “아직 승리가 아니다. 2차 투표가 결정적”이라며 “폭력적인 극좌 정당 손에 프랑스가 넘어가는 걸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르펜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조르당 바르블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RN을 절대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고도 촉구했다.

NFP에 속한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

(LFI)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게 명백한 패배를 안겼다”며 2차 투표에서 RN에 맞설 유일한 대안은 NFP라며 표결집을 촉구했다.

처참한 선거 결과를 받아 든 마크롱 대통령은 성명에서 “높은 투표율은 이번 투표를 중시하는 정치적 상황을 증명한다”며 “2차 투표에서 RN에 맞서 광범위하고 분명한 민주적·공화적 결집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지지층에 호소했다. /연합뉴스

이란 대선 개혁파 1위 ‘이번’

과반 득표 없어 5일 결선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헬기 추락사고로 숨지며 급작스럽게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개혁파 후보가 예상을 깨고 득표율 1위를 차지하는 이번이 벌어졌다.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당선자는 내달 5일 결선투표에서 가려지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이란 내무부와 국영방송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선거의 개표가 잠정 완료된 결과,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1041만여표(42.5%)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개혁파로 분류된다.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59) 후보가 947만여표(38.6%)로 2위에 올랐고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측됐던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63) 후보는 338만여표(13.8%)를 얻는 데 그

쳤다.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후보는 20만 6000여표(0.8%)였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심장외과의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을 소유한 5선 마즐리스(의회) 의원이자, 이번이 3번째 대선 도전이며 헌법수호위원회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해 선거전을 치른 것은 처음이다.

서방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제재 완화, 하급 작용 여부에 대한 단속 합리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끌었다.

온건 성향 하산 로하니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타결의 주역으로 인지도가 높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이 그를 적극 지원했다.

페제시키안 후보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가난, 거짓말, 차별, 불의로부터 구하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럽 폭풍우 몰아쳐...사망·실종 잇따라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에 폭풍우가 몰아쳐 모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30일(현지시간) AFP·dpa통신 등에 따르면 29일 저녁 프랑스 동부 오브주(州)의 도로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달리던 차량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스위스 남부 티치노주 마지아강의 계곡에서는 산사태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에서는 폭우에 로네강이 범람해 도로가 폐쇄되고 수백 명이 대피했다. 알프스산맥 기슭에 있는 한 호텔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발레주 다른 지역에서도 1명이 실종된 상태다. /연합뉴스

스위스와 국경을 맞댄 이탈리아 북서부 발레다 오스타-피에몬테주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300여명이 대피했다.

독일 중서부에도 폭풍우가 덮쳐 하노버·도르트문트 등지를 오가는 철도 운행이 멈췄다. 29일 저녁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 독일과 덴마크의 16강전이 열린 도르트문트에는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쳐 경기 25분간 중단됐다.

독일 서부 헤센주에는 최고 시속 107km의 강풍이 불었다. 독일 기상청은 밤새 전국에서 10만회 이상 번개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